

유틸리티 글로벌, 시오다 테츠야(塩田哲也) 씨를 상급고문 겸

일본대표로 임명

전 일본제철(日本製鐵) 총괄부장,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사업 확장과 파트너십 강화를  
담당

**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– 2025년 10월 9일 –**

경제적인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\*\*유틸리티 글로벌(Utility Global, 이하  
'유틸리티')\*\*은 오늘, **시오다 테츠야(塩田哲也)** 씨를 \*\*상급고문(Senior Advisor) 겸  
일본대표(Japan Representative)\*\*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.

시오다 씨는 40년 이상에 걸친 **글로벌 제철 및 탈탄소화 분야의 전문 지식**을 유틸리티에  
더하여,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에 있어  
유틸리티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.

시오다 씨는 일본제철에서의 **눈부신 40년간의 경력**을 마치고 유틸리티에 합류했다.

지질학을 전공한 그는 폭넓은 지식과 탁월한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, **제선(製銑)**

**기술개발, 생산관리, 에너지 최적화, 원료 평가, 탈탄소화,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** 등 다양한  
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.

시오다 씨는 1990년대 일본의 초기 철광석 용융환원 프로젝트에서부터, 최근의 **수소 및  
저탄소 원료(환원철, 바이오카본 등) 평가**, 그리고 **CO<sub>2</sub> 포집 및 저장(CCS) 기술 개발**에

이르기까지, 일본제철의 탈탄소화 추진 전략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다.

그의 평생에 걸친 업적은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,  
또한 전 세계 주요 제철사 및 원료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탈탄소화를  
선도해왔다.

유틸리티 글로벌의 \*\*파커 믹스(Parker Meeks) 최고경영자(CEO)\*\*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“시오다 씨를 유틸리티 글로벌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
철강 제조 운영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, 철강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깊은 통찰, 그리고  
아시아 전역에 걸친 강력한 산업 네트워크는,

**유틸리티의 H<sub>2</sub>Gen® 솔루션이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용화 활동을  
가속화하는 데 있어 대단히 큰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.”**

시오다 테츠야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.

“유틸리티 글로벌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.

유틸리티의 혁신적인 기술, 즉 **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고농도의 CO<sub>2</sub>를 분리·배출하는 공정**은

철강산업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 **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**을 제공합니다.

일본의 산업 리더 및 아시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, 유틸리티의 **H<sub>2</sub>Gen 기술을 통해 저비용·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**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”

상급고문 겸 일본대표로서 시오다 씨는 **일본의 철강업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파트너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을** 주도하며,

배출 감축이 어려운 산업들이 **\*\*경제적 경쟁력과 대규모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‘전력 불요형 수소 생산 솔루션’\*\***을 확산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.

또한, 올해 초 유럽 고문으로 유틸리티에 합류한 **타타스틸 유럽 및 티센크루프 전 임원인 헨리크 아담(Henrik Adam) 박사**와 함께

유틸리티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
---

## 유틸리티 글로벌(Utility Global) 소개

유틸리티 글로벌은 철강, 모빌리티, 석유·가스, 정유, 화학 등 **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을 위한 경제적 에너지 전환 솔루션**을 개발하고 있다.

유틸리티의 혁신적인 **H<sub>2</sub>Gen® 기술**은 산업 오프가스 및 다양한 바이오가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,

독자적인 전기화학 공정을 통해 **전력 없이 물로부터 고순도의 저(또는 음의) 탄소 수소**를 생산한다.

H<sub>2</sub>Gen 시스템은 **탁월한 운전 유연성과 기존 인프라와의 완벽한 통합성**을 갖추고 있어, 비용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한다.

또한 H<sub>2</sub>Gen은 **고농도의 CO<sub>2</sub> 스트림을 생성하여 탄소포집(CCS) 과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**할 수 있다.

모듈형·확장형으로 설계된 H<sub>2</sub>Gen은 **최소한의 설치 공간으로 저가 원료를 고부가가치 청정에너지·연료·원료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해,

고객이 높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유틸리티는 산업 탈탄소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\*\*프라이빗 에쿼티 기업 아라 파트너스(Ara Partners)\*\*의 포트폴리오 기업이다.  
자세한 내용은 [www.utilityglobal.com](http://www.utilityglobal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--

## 아라 파트너스(Ara Partners) 소개

아라 파트너스는 **산업 탈탄소화에 특화된 글로벌 사모 및 인프라 투자회사**이다.  
2017년에 설립된 아라 파트너스는 산업·제조, 화학·소재, 에너지 효율·그린 연료, 식품·농업 분야에서  
**탈탄소화 효과가 큰 기업의 구축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.**  
휴스턴, 보스턴, 워싱턴 D.C., 더블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,  
**2023년 12월 제3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28억 달러 이상을 조성하였다.**  
2025년 6월 30일 기준, 아라 파트너스의 **운용자산(AUM)**은 약 66억 달러에 달한다.  
자세한 정보는 [www.arapartners.com](http://www.arapartners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